

## 노사연·이하니·김별아가 ‘출산 전도사’가 된 이유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숨이 깊게 안 쉬어질 정도로 책임감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한다”며 자신은 출산 후 한층 편안하고 성숙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경이로운 존재를 낳았구나’라는 마음이 생긴다며 “결혼과 출산은 여자에게 너무 좋은 기회인 거 같다”고 했다.

소설가 김별아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나이 스물여덟, 청평과니 시절에 나는 최초로 ‘엄마’라는 이름을 얻었다”며 “내가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은 두 발로 땅을 디디 걷는 법

“아이 낳고 키우는 것 힘들지만 그 속에 크나큰 기쁨이 있다”  
“안 낳았으면 여유 누렸겠지만 수많은 송고한 진실 몰랐을 것”

등 정도였지만 아이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 소중했다”고 썼다. 그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빙그레 머금은 웃음에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경험을 못했을 것” “그토록 희의를 품어 온 ‘사랑’이라는 말의 실체가 이토록 엄연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더 많은 시간의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불편한 양육의 번거로움이 내게 가르쳐주는 송고한 희생의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글엔 출산과

육아를 경이, 환희, 감사, 감격 같은 단어로 표현한 대목이 많다.

출산율이 떨어져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뉴스가 홍수를 이룬다. 올해 함께 출산율이 0.7명대조차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저출산 관련 기사와 기획, 칼럼을 쓰면서 느낀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과 기쁨을 표시하는 균형추가 요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출산은 낳아서 길러야 하는 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맡고는 개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결과는 임신·출산·육아가 누구에게나 행복한 경험이 되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사회가 나눠 부담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과 육아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출산의 기쁨과 출산 이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목소리들을 담아보았다. 필자가 돌아다보면 그동안 살아온 것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빼면 뭐가 남을까 싶다.

김준의 맛과 성 [167]

### 고흥 김국

직접 재배한 배추를 천일염에 절이고, 무를 썰고 있었다. 김장 준비를 하느라 미쳐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국을 들고 손님이 찾아왔다. 고흥에서 김 양식을 하는 지인이다. 따뜻한 김국 한 그릇은 열어 있는 몸을 녹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전에 완도와 신안에서 김국을 먹어 본 적이 있지만, 첫 수확한 겨래 맛이 각별했다. 특히 입맛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내가 아주 만족했다. 김장을 마칠 때까지 사흘간 고흥 김국이 밥상을 지켰다. 며칠 후 직접 고흥군 도화면 구암마을에서 김국을 가져다 김국을 끓였다. 생김을 여러 번 세척하고 물을 꼭 짰 후에 된장으로 밑간을 한 김을 넣고 붉은색이 날 때까지 끓인 후 굴과 마늘을 넣고 다시 검은색으로 바뀔 때까지 끓이면 된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김 양식 면적은 6만3000여 ha(헥타르)이다. 그중 전남은 5만8000여 ha로 90% 이상이다. 이 중 고흥 지역의 김 양식 면적은 약 1만ha에 이른다. 고흥 김 양식은 10월 초에 시작해 12월 초부터 채취한다. 날씨와 수온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대체로 4월까지 이어진다. 고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우리나라 김밥용 김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에 수산물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고흥 김은 다른 지역보다 채취 시기가 빨라 12월에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최근에 김을 비롯한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열대우림보다 높은 것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최근 김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김 양식은 고흥뿐만 아니라 서해와 남해 어



촌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김 양식이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인력 공급이 중요하다. 김 양식 규모가 커지면서 양식 어가마다 네댓 명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고흥 지역은 면소재지에도 이들 이주 노동자를 위한 식사재 마트가 자리를 잡았다. 또 다른 변수는 기후 위기다. 김 양식은 수온에 민감하다. 서남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양식지도 점점 북상하고 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수출로 모처럼 찾은 호기를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여건 활성화 정책보다 시급하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説

### 유튜브 생중계 국민의힘 회의, 시청자는 70여 명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는 아무 논란 없이 조용하게 끝났다. 흔한 의견 충돌이나 큰 소리 한 번 없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비판만 했다. 지도부·진영·중진들이 힘겨운 마하거나 불참하라는 혁신위의 최후통첩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전략공천 배제 등 혁신위 제안은 정식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이날 회의장 중앙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최고위원이 자리했다. 세 사람 모두 60대에 영남 출신이다. 둘은 경찰 출신이다. 이전엔 40대 수도권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 대표 옆에 앉았다. 그는 혁신위 요구를 수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지명직인 김 회고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도부 회의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시청자는 당직자와 기자 등 70여 명이 있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엔 3000~4000명에 달했다. 국민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그들만의 회의’가 돼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한 직후 반짝 관심을 받았다. ‘메가 시티’ 구상과 ‘공매도 금지’ 등 정책 발표도 주목을 끌었다. 수도권 지지율이 모처럼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

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 대표의 약속은 말뿐이었다. 잇단 혁신안 거부로 인 위원장과 갈등만 부각됐다. 정책 발표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인요한 원맨쇼”라는 말이 나왔다.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인재 영입 발표는 없었다. 총선 기획단에 대해서도 “이런 댕깁 회의 왜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그래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명 초선 의원은 침묵했다. 대부분 영남 출신이라 공천권을 쥔 지도부 눈치만 봤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여 후 당을 탈바꿈하겠다고 혁신위를 떠난 지 한 달여 만에 과거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대통령실 신임 참모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앞으로 노동·교육·연금·재정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추진하려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통해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야 한다. 국정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혁신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회 구조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 민주당서 나온 “당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탄식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영천 의원은 5일 “어떻게 우리 당 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모두 당내 비주류 인사이지만 국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은 성직자의 윤리가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돈과 거짓말 관련이다.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한 측근을 비롯해 20여 명이 구속됐다. 그런데 본인은 구속을 피하려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거꾸 출마해 1년 넘게 방탄 국회의 열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피의자이면서 수사 검사를 탄핵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와 아무 관련 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총동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당대회 동분투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동분투를 뿌린 의원은 이미 구속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돈을 조달할 사업가는 재판에서 “송 전 대표가 ‘고맙다’ 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송 전 대표는 범무장관에게 “어린 X”이

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출마하겠다고 한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놓고 또 말을 뒤집을 태세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위외관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정연회 회계 자료를 왜 볼테우지 않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대표가 의원에게 불법과 증거인멸을 종용한 것이다. 그는 한명숙 전 대표가 물증이 명백한 불법 자금 수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것도 그다. 돈과 거짓말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평범한 국민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부터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쩌다 잘못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식 밖 말과 행동으로 덮으려고 한다. 임시 비리를 도운 혐의로 의원직을 잃고도 ‘입맛’ 막말을 한다. “매일 라면만 먹는단” 의원은 100억원대 코인 거래를 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 있느냐”는 의원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도덕적이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재명 대표부터 성찰하기 바란다.



### 안전에 써야 할 돈으로 개인 레저용품 쇼핑한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가의 등산복과 스포츠 의류,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사는데 공금을 유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안전화, 안전모 같은 용품을 구입하라고 지급된 시설투자비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이다. 이런 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조사 대상이 된 지자체 9곳 모두에서 벌어졌다. 총 1300여 명이 적발됐다. 혼자서 2년간 9차례 걸쳐 31품목, 496만원어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공무원도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금으로 쇼핑을 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비위는 단순한 세금 도둑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 구입에 써야 할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 레저 활동 비로 썼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공직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성수대교, 삼봉백화점, 세월호, 헬리콥터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사고에선 ‘안전’을 경시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LH 아파트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리니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2배 늘어났다.

권익위는 이번엔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시설투자비 환수 조치를 요구하게 전파하고 있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은 권익위원회의 일이라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대부분 한 통속인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할 리 없다. 관행을 내세워 제 식구 감싸기식 제재만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도 또 전국 각지의 공무원들이 안전에 쓰는 국민 세금으로 제 스포츠 용품을 살 것이다.

# 이재명 '미치광이 전법' 올인... 국힘 현 지도부, 주연배우 역 물려라

국힘에 고한다... 스타정치 유망주와 임무교대 하라 | 이준석이 청년 대변?... 아니다, 역선택만 대표!

**인요한 혁신위, 길을 잃었다**

2024 총선을 불과 5개월 앞에 닥쳤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안개 속 행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다 사들였던 이준석만 되살려주었다. 기성 당권파에 대해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인요한의 일하는 방식도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선(善)한 [망야의 소리]가 일방적으로 외쳐지더니, 그냥 잦아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어찌해야 하나?

국민의힘, 이대로는 망한다. 민주당에 지기 전에 먼저 자유 국민의 짜증을 사서.

**민주당도 지리멸렬 중**

민주당도, [이재명 리스크]로 지리멸렬이긴 하다. 탄핵 중독 등 하는 짓거리들이 완전 [미치광이 전법] 그것이다.

그러나 좌익엔 그래도, 좌익의 가을(秋)이라는 게 있다. 이 규범을 강제하는 [권위의 체계]도 있다.

자유 진영엔 그런 게 없다. 누구 말을 누가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할 말을 안 할 순 없다. 총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이 폭삭 망하는 것을, 뻔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그래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힘 지도부, 이 말 좀 들어보소**

(1) 이준석을 비롯한 [내부 총질꾼 + 기화주의 중간배들]을 제쳐버려라.

적에 대해선 유화주의로, 선명 자유 노선엔 적의(敵意)로 대하는 그들을 어떻게 아군으로 품을 수 있나?

[이준석 현상을 뒤, [보수의 미래 + 보수에 활기 줄 사람]? 웃겼다. 그보다는 [탄핵 가짜뉴스 + 역선택]의 [보수 갈라치기] [윤석열 식물회] 풍수라 해야 맞을 듯 싶다.

(2) 국민의힘 현 지도부, 새 스타들에게 임무를 교대 하라. 선거는 큰 연예(演藝) 한판이다.

이건, 타고 난 ★ 재주꾼들 ★ 인기인들 ★ 스타강사들 ★ 명칭(名聲)들 ★ 줄풍들 ★ 재능 궂들만이 할 수 있다.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미란 등을 간판으로!**

그동안 좌파만이 [대중문화화한 정치]를 좌지우지 해왔다. 소위 [아웃 문화행사] 때도 그쪽 연예인들이 대거 몰려 나왔다.

이런 세상 물결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어선, 자유 진영은 판판이 진다.

때마침 자유 진영 정계에도 적잖은 지적(知識)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인재들이 여기저기 출현했다.

★ 열차표를 물리고 3시간씩이나 팬들에게 사인을 해줘야 했던 한동훈.  
★ 대장동 퍼즐 조각들을 단숨에 갖다 맞춘 원희룡.  
★ 정용성 공원을 정면으로 치고 나온 박민식.  
★ 금메달의 영광을 우아한 품격으로 담아낸 장미란.

국민의힘 현 지도부, 그렇게 할 수 있나? 없으면 선선히, 기꺼이 자리를 물려라. 조수미는 부른다. “카테리나 행 거 차는 여덟 시에 떠나가네”

마지막 기회다.

**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재명, 왜 연일 '탄핵 총탄' 난사?... [매일수업]라 차베스 처럼 되고 싶어?

국기원수 심장부 농락 당했다... 대통령실, 영부인 보좌 특사로 하라

[반도라] 보고 원전 죽인 민주당, (서울의 봄) 보고 개입 심등

일부 언론, 왜 박근혜 출신 피우는가- 탄핵동지 이준석 일명 구하기 안?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3일 게재 되었습니.

NO. 6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